

May 2015 subject reports

Korean A Literature

Overall grade boundaries

Higher level

Grade:	1	2	3	4	5	6	7
Mark range:	0-18	19-33	34-44	45-57	58-70	71-82	83-100

Standard level

Grade:	1	2	3	4	5	6	7
Mark range:	0-15	16-28	29-40	41-53	54-65	66-77	78-100

Higher level internal assessment

Component grade boundaries

Grade:	1	2	3	4	5	6	7
Mark range:	0-5	6-10	11-13	14-17	18-21	22-25	26-30

제출된 작품의 범위와 적합성

첫 번째 부분인 commentary 의 시 작품은 모두 PLA 에 있는 시인의 작품으로 문제가 없었으나 간혹 한 시인의 작품이 아니라 여러 시인의 작품을 공부한 학교도 있었다. Part 2 는 Detailed study 로 Higher Level 인 경우 세 작품을 각각 다른 장르의 작품으로 공부해야 한다. 한 작품은, 시의 경우 한 시인의 15-20 작품이고 단편소설인 경우는 한 작가의 5-10 개의 작품이 된다.

두 번째 부분인 Discussion 에서는 거의 모든 학교가 시가 아닌 다른 장르의 작품으로 하고 있으나 간혹 또 다른 시로 진행한 학교도 있었다. Discussion 에서는 시를 제외한 나머지 두 장르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 대부분의 학교가 잘 수행하고 있었다.

각각의 평가기준에 대한 학생의 성과

Criterion A Knowledge and Understanding of the poem

예년에 비해 나아지고는 있지만 여전히 많은 학교에서 시인의 배경과 역사적 상황 설명으로 commentary 를 시작하고 있다. 간혹 녹음을 시작하고 3분정도에 걸쳐 배경을 설명하고 “자 이제 본격적으로 시를 분석해보면~” 하고 진행하는 경우가 있는데 시인의 배경이나 역사적 상황을 따로 설명할 필요는 없다. 꼭 필요하다면 최소한으로 하고-없어도 좋다- 시 분석 과정에서 포함할 수 있도록 한다. 그리고 이 같은 경우 미리 준비한 대본을 읽는 듯하며 학생들의 commentary 도입 부분이 거의 같은 내용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다. 배경 설명의 도입부를 미리 준비할 경우 학생의 긴장감을 완화하는 데는 도움이 될 수 있으나 결코 바람직하지는 않다.

학교에서 배운 내용을 토대로 개인의 이해를 단편적으로 나열하지 말고 충분한 근거를 제시하면서 발표하는 것이 중요하다. 간혹 본인이 언급했음에도 불구하고 subsequent questions 에 효과적인 답을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본인의 이해에서 나온 지식이 아니라 IOC 를 위해 외운 단편적 지식에 가깝기 때문이다.

Criterion B: Appreciation of the writer's choices

수사법과 심상, 장르적 용어의 설명 등은 전반적으로 언급되고 있으나 이것들이 시의 주제를 형성하는 데 어떤 역할을 하는가에 대한 분석이 미흡한 경우가 많다. 단순 기술적 용어의 나열이 아니라 시의 전체적 맥락에서 어떤 효과를 지니느냐에 대해 설명할 필요가 있다. 시의 형식이 어떻게 내용적인 면과 잘 부합해서 작품의 완성도를 높이는지 생각해 봐야 한다.

Criterion C: Organization and presentation of the commentary

앞서 언급했던 것처럼 발표 도입 부분에서 시인의 배경이나 역사적 상황을 설명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부분이 길어지는 것은 효과적인 발표구성에 적절하지 않다. 그리고 행별로 순차적으로 발표하는 것도 좋은 구성은 아니다. 첫 행을 시작으로 마지막 행을 분석하고 발표를 마치는 경우도 있다. 전체적인 시를 아우르는 분석이 필요하다. 시의 형식적인 면과 내용적인 면을 균형있게 다루어야 한다. 그리고 구체적인 근거를 제시하며 발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간혹 감상에 치우치는 경우도 있는데 이는 최소한으로 하도록 해야 한다.

Criterion D: Knowledge and understanding of the work used in the discussion

이 criterion 은 시 외의 다른 장르의 작품으로 구성되어야 하며 또 다른 시로 했을 때는 3 점을 maximum 점수로 한다. 간혹 미리 준비한 commentary 를 발표하는 듯한 학교가 있다. 학생의 이해도를 평가하는 것이긴 하지만 일방적 발표는 discussion 의 취지에 맞지 않다. 간혹 소설과 수필장르의 작품을 균등하게 다루는 학교도 있는데 한 장르에 집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리고 작품의 단편적인 줄거리나 사건위주의 토론은 바람직하지 않다.

Criterion E: Response to the discussion questions

토론의 질문은 기본적인 것에서 시작해서 깊이 있는 것들로 이끌며 진행해야 한다. 학생의 대답 중에서 더 깊은 토론으로 이어져나갈 수 있도록 질문을 해야 한다. 작품에 대한 단편적인 지식을 묻는 질문의 연속은 효과적인 토론이라 볼 수 없다. 그리고 가장 피해야 할 질문은 작품에 대한

학생의 감상과 개인적인 경험과 연관지어 묻는 질문들이다. 이러한 질문들은 감상문에 취우칠 위험이 있을 뿐만 아니라 작품에 대한 깊은 이해를 보여줄 수 없기 때문이다.

Criterion F: Language

대본이 없는 발표이기 때문에 약간의 휴지나 반복적 표현은 피할 수 없는 자연스런 부분이다. 그러나 발표 내용을 충분히 파악하고 있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는 분명한 차이가 있다. 어려운 단어사용의 연속이 반드시 좋은 점수로 이어지지 않는다. 간혹 평서문으로 발표를 하는 경우도 있는데 발표는 듣는 대상을 고려하는 것으로 구어체 존댓말로 해야 한다.

다음 학생을 가르치기 위한 조언과 길잡이

매년 하는 것이라도 항상 IB Subject Guide 를 참고해야 한다. 학생들이 IOC 에 익숙해지도록 충분히 연습하는 것이 좋다. 시를 공부할 때는 시로 IOC 를 연습하고, 수필이나 소설을 공부할 때도 IOC 를 연습할 기회를 갖도록 하는 것이 좋다.

Commentary 방식은 특별히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학생들 스스로 본인의 방식을 찾을 수 있도록 배려해야 한다. 어느 한 형식을 예로 제시할 수는 있으나 그것이 작가의 소개나 시대 배경을 언급하는 것으로 시작한다면 바람직하지 않은 예가 될 것이다.

어떤 한 작품을 시작하기 전과 공부한 후에 특정 부분을 commentary 하게 하면 학생들의 발전과정도 볼 수 있고 독립적인 학습효과를 높이는 데도 좋을 것이다. 인터넷에서 찾은 정보나 수업에 너무 의존하지 말고 독립적으로 공부할 수 있게 이끄는 것도 중요하다. 단편적인 지식의 나열이 아니라 본인의 이해를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데 그 목적이 있기 때문이다. 토론 부분도 학생들이 수업 중에 충분히 익숙해 질 수 있도록 열린 질문을 많이 하고 그 대답의 근거를 작품 속에서 효과적으로 찾아 설명할 수 있게 하는 방식이 도움이 될 것이다. 학생들이 항상 완결된 문장으로 발표하도록 유도하고 교사도 수업 중 단어 선택과 문장에 주의를 기울이고 이끌면 IOC 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Standard level internal assessment

Component grade boundaries

Grade:	1	2	3	4	5	6	7
Mark range:	0-4	5-8	9-12	13-16	17-19	20-23	24-30

제출된 작품의 범위와 적합성

대부분의 학교가 PLA 에 있는 작가의 작품으로 문제가 없었으나 간혹 단편소설인 경우 여러 작가의 작품을 공부한 학교도 있었다. Part 2 는 Detailed study 로 Standard Level 인 경우 두 작품을 각각 다른 장르의 작품으로 공부해야 한다. 한 작품은, 시의 경우 한 시인의 15-20 작품이고 단편소설인 경우는 한 작가의 5-10 개의 작품이 된다.

발췌문의 길이는 20-30 줄 정도가 적당하나 40 줄을 넘기는 학교도 있고 중략의 빈번한 사용으로 작품의 시작부터 끝까지 발췌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적절하지 못하다.

각각의 평가기준에 대한 학생의 성과

Criterion A Knowledge and Understanding of the extract

앞서 Higher Level 에서도 언급했듯이 여전히 많은 학교에서 작가의 배경과 역사적 상황 설명으로 commentary 를 시작하고 있다. 간혹 녹음을 시작하고 3 분정도에 걸쳐 배경을 설명하고 “자 이제 본격적으로 주어진 발췌문을 분석해보면~” 하고 진행하는 경우가 있는데 작가의 배경이나 역사적 상황을 따로 설명할 필요는 없다. 꼭 필요하다면 최소한으로 하고-없어도 좋다- 발췌문 분석 과정에서 포함할 수 있도록 한다. 그리고 이 같은 경우 미리 준비한 대본을 읽는 듯하며 학생들의 commentary 도입 부분이 거의 같은 내용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다. 배경 설명의 도입부를 미리 준비할 경우 학생의 긴장감을 완화하는 데는 도움이 될 수 있으나 결코 바람직하지는 않다.

학교에서 배운 내용을 토대로 개인의 이해를 단편적으로 나열하지 말고 충분한 근거를 제시하면서 발표하는 것이 중요하다. 간혹 본인이 언급했음에도 불구하고 subsequent questions 에 효과적인 답을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본인의 이해에서 나온 지식이 아니라 IOC 를 위해 외운 단편적 지식에 가깝기 때문이다. 또한 발췌문을 중심으로 발표를 구성해야 하는데 전체적인 작품 중심으로 발표하는 경우가 많다.

Criterion B: Appreciation of the writer's choices

소설이나 수필인 경우 내용적인 면에 치우치기 쉬운데 그 내용을 구성하고 있는 형식적 특징에 대해서도 충분히 설명하도록 해야 한다. 분위기를 형성하는 작가 고유의 문체적 특징과 사건 전개 방식 등의 효과적인 사용을 파악하고 발표에 포함시키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형식적인 면이 어떻게 내용적인 면과 잘 부합해서 작품의 완성도를 높이는지 생각해 봐야 한다.

Criterion C: Organization and presentation

앞서 언급했던 것처럼 발표 시작 부분에 작가의 배경이나 역사적 상황을 설명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부분이 길어지는 것은 효과적인 발표구성에 적절하지 않다. 그리고 줄별로 순차적으로 발표하는 것도 좋은 구성은 아니다. 주어진 발췌문 중심으로 발표를 구성하도록 하며 전체적인 작품의 맥락에서 발췌문 부분의 특징을 찾아내도록 해야 한다.

발췌문에서 보여지는 형식적인 면과 내용적인 면을 균형있게 다루어야 한다. 그리고 구체적인 근거를 제시하며 발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간혹 감상에 치우치는 경우도 있는데 이는 최소한으로 하도록 해야 한다.

Criterion D: Language

앞서 Higher Level 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대본이 없는 발표이기 때문에 약간의 휴지나 반복적 표현은 피할 수 없는 자연스런 부분이다. 그러나 발표 내용을 충분히 파악하고 있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는 분명한 차이가 있다. 어려운 단어사용의 연속이 반드시 좋은 점수로 이어지지 않는다. 간혹 평서문으로 발표를 하는 경우도 있는데 발표는 듣는 대상을 고려하는 것으로 구어체 존댓말로 해야 한다.

다음 학생을 가르치기 위한 조언과 길잡이

앞서 Higher Level 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매년 하는 것이라도 항상 IB Subject Guide 를 참고해야 한다. 학생들이 IOC 에 익숙해지도록 충분히 연습하는 것이 좋다.

Commentary 방식은 특별히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학생들 스스로 본인의 방식을 찾을 수 있도록 배려해야 한다. 어느 한 형식을 예로 제시할 수는 있으나 그것이 작가의 소개나 시대 배경을 언급하는 것으로 시작한다면 바람직하지 않은 예가 될 것이다.

어떤 한 작품을 시작하기 전과 공부한 후에 특정 부분을 commentary 하게 하면 학생들의 발전과정도 볼 수 있고 독립적인 학습효과를 높이는 데도 좋을 것이다. 인터넷에서 찾은 정보나 수업에 너무 의존하지 말고 독립적으로 공부할 수 있게 이끄는 것도 중요하다. 단편적인 지식의 나열이 아니라 본인의 이해를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데 그 목적이 있기 때문이다. 열린 질문을 많이 하고 그 대답의 근거를 작품 속에서 효과적으로 찾아 설명할 수 있게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학생들이 항상 완결된 문장으로 발표하도록 유도하고 교사도 수업 중 단어 선택과 문장에 주의를 기울이고 이끌면 IOC 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Higher level and standard level written assignment

Component grade boundaries

Grade:	1	2	3	4	5	6	7
Mark range:	0-6	7-9	10-12	13-15	16-18	19-20	21-25

제출된 과제의 범위와 적합성

대부분 학생들은 에세이 작품 선정을 적절히 하였고, 이는 해당 학교들이 작품을 선정할 때 PLT 를 적극 고려하고 있음을 반영하였습니다. 하지만 교재 선정에서의 몇 가지 우려사항이 여전히 보입니다.

- 에세이의 주제와 논점에 대한 이해가 제한적임.

학교들이 작가 목록에서 특정 작품을 선택한 결과 학생들의 에세이에서 중복되는 주제나 논점이 아주 빈번하게 발견되었습니다. 또한 독창적인 분석이나 관점을 제시하기 보다는 이미 발표된 서평이나 기사 등의 참고 자료를 무분별하게 사용하고 있음이 보였습니다. 작품의 주관적 관점이 전개하여 타당함을 주장하기 위해서 학생들은 해당 문학 작품을 심층적으로 읽고, 논점을 정확하게 이해합니다. 이를 통해 타당하면서도 독창적인 근거를 작품에서 찾아 낼 수 있고 독자들을 설득할 수 있습니다.

평가 기준별 수행 상황

- 에세이 분량의 기준: 어휘 vs. 글짓수

학생들은 1200~1500 어휘의 길이로 에세이 과제를 수행하여야 합니다. 하지만 몇몇 학교에서는 어휘 기준의 분량을 글자수로 환산하여 에세이의 분량을 정했습니다. 이러한 에세이 분량의 기준 차이는 에세이 의 전개와 내용에도 영향에도 차이를 드러냈습니다.

어휘 (1200~1500)	글자수 (2760~3450)
<ul style="list-style-type: none"> 문화적 맥락과 작가의 문학적 기술에 대한 이해를 다룸 작품의 근거를 활용하여 주관적 의견을 논리적으로 전개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대부분 문학장치의 개념 정리와 기술에 치중함 문학적 관점의 분석보다는 작품의 내용전개(줄거리) 진술

따라서 문학작품의 문화적 맥락에 대한 독자적인 의견을 적절히 전개하기 위해서 가이드북에서 제시한 어휘수 기준의 분량을 따를 것을 권합니다.

- 평가기준에 대한 커멘트 / Comments on Criteria A, B, C, D, E

A. Reflective Statement: RS 를 통해서 작품의 맥락에 대한 이해의 발전을 보여주는 것인데 대부분은 작품의 줄거리를 서술하거나 개인감상 서술이 많고 사회 문화 등등 진술은 매우 제한적임. 또한 interactive oral 중에 학생들이 다른 주제에 대한 이해나 진술, 에세이의 내용이나 주제선택에 대한 방향이 드러날 필요가 있었음.

B. 글에 보여지는 지식의 수준과 이해정도

작품에 대한 심도있는 이해가 적고 매우 피상적인 주제들을 다뤘다. 많은 에세이들이 이미 연구된 정보나 지식을 나열하거나. 작품의 줄거리 서술이 많았다. 또한 주제를 논증해 주는 에세이의 내용이 연관되지 않거나 작품의 외적 정보만 서술된 부분이 다수였음.

C: 작가의 의도파악 (가장 취약한 부분)

작가가 어떻게 언어나 구성 기술 스타일을 선택하고 의미를 만들었는가 포커스이며 함축적인 요소의 의미를 서술하고는 있으나 작품 내에서 어떤 독특한 효과를 지니고 있는지 서술하지 않는다. 그리고 예시문을 제시하지만 논점과 효과적으로 연결시키는 진술이 부족해 보임. 줄거리 서술이 대신 작가의 문학적 기술에 대한 분석적 진술을 다룰 것.

D: 글의 전개/ 발전 정도와 구성/ 조직력

서론 본론 결론의 에세이 틀을 갖출 필요가 있음.

서론부분은 에세이에서 다루는 논점과 입장을 명확히 드러내어야 함. 본론에는 단편적 문학 정보만 거론하기 보다는 서론에서 밝힌 논점의 타당성을 입증할 것. 또한 지나치게 장황한 예시문 삽입은 논점을 흐리게 하여 글의 설득력을 떨어뜨림.

핵심 논점이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드러난 간결한 제목

Academic Honesty 를 지킬 것. 예) 각주나 참고문헌 목록 등 자료의 출처를 적절한 형식을 활용하여 밝히기

D. 언어사용능력

학생들은 문장력은 두 부분으로 나뉜다. 매우 좋거나 부족하다. 단어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고 쓰는 경우와 문장호응이 부적절하여 에세이의 의미 전달이 드러나지 않는 경우 또한 문법의 호응이 잘 되지 않거나 연구된 자료 서술이 있는 경우 에세이 내용에 설득력이 떨어진다.

학생 지도에 대한 조언과 길잡이

- 서론, 본론, 결론의 에세이 형식을 갖출 것
- 에세이의 내용과 논점을 명확하고 압축적으로 제시하는 제목을 활용
- Academic Honesty 를 존중할 것. (각주, 참고자료 목록 및 자료 인용 규칙을 정확하게 따르기)
- 에세이의 토픽에 대한 독자적인 입장을 일관성 있게 전개하기 위해 불필요하고 장황한 작품인용을 지양하기 바람.
- Reflective Statement – 상당수의 학생이 RS 에서 작품의 줄거리나 작가의 생애를 장황하 진술하였습니다. RS 는 Interactive Oral 후에 바로 이어지는 작문이므로 작품에 대한 문화적 맥락의 이해가 얼마만큼 또 어떻게 확장 되었나를 다루어야 합니다. 줄거리나 작가의 약력, 독서감상문 등은 RS 의 적절한 내용이 아닙니다.
- 가이드 북에서 제시된 지침을 따를 것
- 반드시 PLT 에 있는 작품을 선택할 것.

Higher level paper one

Component grade boundaries

Grade:	1	2	3	4	5	6	7
Mark range:	0-3	4-6	7-8	9-10	11-13	14-15	16-20

학생들이 어려워하는 것으로 드러난 프로그램과 시험의 영역

페이퍼 1 시험은 선택한 제시문을 분석하는 한 편의 코멘터리를 작성하는 시험으로서, 학생은 자신이 선택한 제시문을 적절히 분석하고 그 분석 내용을 구체적이고 체계적이며 논리적으로 서술해야 한다. 그런데 이번 해의 경우, 제시문의 내용을 파악하는 데에 오류를 범한 학생들이 매우 많았다. 예년에 비하여 올해 제시문들의 난이도가 다소 높은 탓도 있겠지만, 학생들이 전체 내용 파악하고 도출하는 과정에서 논리적 오류를 범한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또한, 내용을 적절히 파악한 학생들일지라도 자신이 파악하거나 분석해 낸 내용을 구체적이고 논리적으로 표현해 내지 못하거나, 글 전체를 논리적이고 체계적으로 구성하고 전개하는 데에 어려움을 겪은 경우들이 많았다.

학생들이 잘 준비한 것으로 드러난 프로그램과 시험의 영역

예년에 비하여 학생들이 문학 이론에 대한 지식을 많이 갖춘 것으로 보인다. 문학적 용어 및 문학 이론을 바탕으로 하여 세부적인 표현법 등을 포함한 여러 문학적 장치들, 그리고 장르적 특성에 대한 분석을 많이 시도하였다. 또한, 어휘 사용 및 문장 표현, 철자법이나 문장 성분 간의 호응 등의 언어 표현 측면에서의 수준도 높아진 것으로 보인다. 물론 어휘의 적절치 않은 사용이 나타나거나 문법적 오류를 범하는 경우도 많기는 하였지만, 예년에 비하여 보았을 때 학생들의 언어 표현 수준은 전반적으로 높아졌다고 할 수 있다.

학생들이 각 문제를 대하는데 있어서의 강점과 약점

1 번 문제(산문)에 대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주어진 제시문의 상황, 인물들 및 서술자의 특징 등은 대체적으로 잘 파악하였다. 그런데 제시문에 나타난 대화들, 서술자의 서술 및 시간적 배경 등 각각에 대하여서는 잘 파악한 반면에 그러한 분석을 바탕으로 제시문 전체의 의미 및 내용을 파악하는 데까지는 나아가지 못한 학생들이 매우 많았다. 그러한 과정을 거친 학생들의 경우에도, 각 분석 내용을 논리적으로 종합하는 과정에 오류가 있어 작가의 의도 등을 잘못 파악한 경우가 많았다. 요컨대, 제시문에 나타난 지엽적인 요소들에 대한 분석은 대체적으로 잘한 반면에, 제시문 전체의 내용이나 그 부분을 통하여 작가가 드러내고자 하는 바를 적절히 파악하지 못한 학생들이 많았다.

일부 학생들의 경우, 주어진 소설 제시문을 수필로 잘못 파악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전체 코멘터리를 작성하였다. 이러한 오류가 코멘터리의 비교적 적은 영향을 미칠 경우에는 문제가 적겠지만, 장르를 잘못 파악한 탓에 문학적 장치와 서술 상황 등에 대하여 매우 잘못된 전체 및 분석을 하게 되어 크게 감점되는 경우도 발생하였다.

2 번 문제(운문)에 대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번 해에 출제된 운문은 작품 내의 상황 및 배경을 비롯하여 대부분의 시어 및 시구들까지 매우 상징적인 의미들을 지닌 작품이다. 다소 어려운 작품인데도 시에 나타난 분위기 및 시에 사용된 문학적 장치들에 대하여 많은 학생들이 잘 짚어 내었다. 그리고 이러한 것들을 짚어 내는 데에 있어 기본적으로 사용해야 하는 문학적 용어들 또한 전반적으로 적절히 사용하였다. 그런데 이러한 문학적 장치 파악의 수준에 비하여 내용적 측면에서의 이해도는 다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수사법이나 기타 문학적 장치들 각각에 대한 분석만 할 것이 아니라, 각 시어 및 시구들이 함축하고 있는 의미, 즉 내용적 측면의 요소들을 면밀히 파악한 후 그것들을 종합하여 시의 주제를 적절히 도출해야 한다. 그런데 문학적 장치 파악에만 치중한 나머지 내용적 측면에서의 분석을 소홀히 하는 학생들이 많았으며, 내용 분석을 시도한 학생들 중에서도 잘못된 전체 또는 논리적 사고의 결여로 인하여 적절치 않은 주제를 도출한 학생들이 매우 많았다. 요컨대, 문학적 장치 분석의 수준에 비하여 시의 전체 내용 분석 및 주제 도출의 수준이 다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 학생을 가르치기 위한 조언과 길잡이

우선, 주어진 제시문의 내용을 적절히 파악하는 연습을 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 학생들은 다양한 장르 및 다양한 시대의 글들을 읽고, 읽은 내용을 참고서 등의 도움 없이 스스로 분석하는 연습을 하면 좋을 것이다. 또한, 자신이 그렇게 내용을 파악한 근거나 이유 등을 논리적으로

표현하는 연습을 하는 것도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그리고 산문 제시문을 선택한 학생들의 경우 제시문의 장르를 잘못 파악하는 학생들이 종종 눈에 띄는데, 장르에 대한 이해 및 제시문의 장르를 파악하는 방법을 교사가 지도한다면 장르 파악 오류로 인한 감점을 방지할 수 있을 것이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대체적으로 학생들의 언어적 표현 측면에서의 수준이 예년에 비하여 높아졌다고 볼 수 있으나, 여전히 기본적인 철자법과 띄어쓰기 등의 오류가 많이 나타나고 있다. 그러므로 문법 준수의 중요성을 학생들에게 인식시키고 항상 유의하며 글을 쓰게 한다면 학생들이 더욱 완성도 높은 코멘터리를 작성할 수 있을 것이다.

Standard level paper one

Component grade boundaries

Grade:	1	2	3	4	5	6	7
Mark range:	0-2	3-4	5-6	7-9	10-12	13-15	16-20

학생들이 어려워하는 것으로 드러난 프로그램과 시험의 영역

이 시험은 선택한 제시문을 읽고 그것의 내용 및 사용된 문학적 장치들에 대한 깊이 있는 분석을 한 편의 코멘터리로 작성하는 것이다. 스탠더드 레벨의 경우 제시문 다음에 도움 문제가 두 개 이상 주어지는데, 이는 대부분 제시문에 사용된 특징적인 문학적 장치에 대한 것이거나 제시문의 내용을 적절히 파악하는 데에 있어 꼭 살펴야 할 내용적 요소에 대한 문제들이다. 학생들은 이 문제들의 내용을 반드시 살피고 그것을 바탕으로 하여 제시문의 주제 또는 그 부분을 통하여 작가가 나타내고자 하는 바를 적절히 도출하여야 한다. 그리고 학생들은 그 문제들에 대한 내용을 반드시 코멘터리에 넣어야 한다. 그런데 코멘터리 작성 시 문제들 중 한 가지 이상의 내용을 빠뜨린 채 작성하는 학생들이 많았다. 또한, 문제들 각각에 대한 답을 글 속에 병렬식으로만 서술하며 그 분석한 내용들을 작가가 전하고자 하는 바 또는 작품의 주제 등과 논리적으로 연관시키지 못하거나, 주제 등의 도출 과정을 논리적이고 상세하게 서술하지 못하는 학생들 또한 많았다.

학생들이 잘 준비한 것으로 드러난 프로그램과 시험의 영역

제시문을 통해 작가가 전하고자 하는 바 또는 작품의 주제를 전반적으로 잘 이해하는 학생들이 예년에 비하여 많았다. 앞서 기술한 바와 같이, 문제로 제시된 지엽적 분석들과 제시문 전체 주제 등을 논리적으로 연결시키는 데에 있어 어려움을 겪은 학생들이 많기는 하였지만, 제시문 자체의 내용 파악 측면만 본다면, 제시문의 내용을 대체적으로 잘 파악하였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어휘 사용 및 표현, 철자법이나 문장 성분 간의 호응 등의 언어 표현 측면에서의 학생들 수준 또한 예년에 비하여 전반적으로 높아졌다. 물론 어휘의 적절치 않은 사용이 나타나거나 문법적 오류를 범하는 경우도 많기는 하였지만, 예년에 비하여 보았을 때 학생들의 언어적 표현 수준은 전반적으로 높아졌다고 할 수 있다.

학생들이 각 문제를 대하는데 있어서의 강점과 약점

1 번 문제(산문)에 대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시문은 소설에서 발췌된 것으로서, 많은 학생들이 인물의 변화와 인물들 간의 차이점 등을 잘 파악하였다. 그런데 이러한 내용 및 표현을 통하여 작가가 궁극적으로 유도하는 독자의 반응 또는 나타내고자 하는 바를 적절히 파악하지 못하는 학생들이 많았다. 인물의 변화 양상, 인물 간의 갈등 및 그 해소 양상 자체는 적절히 파악한 듯이 보이나, 그러한 변화 및 갈등 양상을 작가가 왜 설정하였는지, 그것을 통하여 어떠한 메시지 또는 어떠한 문제를 전하거나 다루고자 하는지에 대한 분석까지 깊이 있게 이루어져야 하는데, 그러한 점에서 부족한 학생들이 많았다. 그리고 제시문 다음에 주어진 도움 문제가 분석하도록 요구하고 있는 비유적 표현이라든지 그 외의 문학적 장치에 대한 분석을 깊이 있게 하지 못하는 학생들이 많았다. 제시문 내에 나타난 비유적 표현을 잘못 짚어 내는 학생들도 있었고, 그러한 표현을 제시문 내에서 잘 찾아 내기는 하였으나, 그것이 의미하는 바를 잘못 파악한 학생들도 많이 있었다. 또한, 소설인 제시문의 장르를 수필로 잘못 파악한 학생들도 다수 있었다.

2 번 문제(운문)에 대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시된 작품에 나타나는 제재의 특성 파악, 그 특성을 통해 알 수 있는 시적 화자의 정서 및 작품의 주제를 전반적으로 잘 파악하였다. 시의 분위기, 각 시어 및 시구의 의미 등도 잘 분석하였고, 작품의 주제 등의 내용 또한 잘 파악한 것으로 보인다. 그에 반해, 기본적으로 파악해야 하는 문학적 장치에 대한 이해와 분석의 수준이 내용 이해의 수준에 비하여 다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시에 사용된 문학적 장치들을 꼼꼼히 살피고 그러한 장치들이 하는 역할까지를 깊이 있게 분석해야 하는데 그러한 것을 시도하지 않거나 분석에 어려움을 겪은 학생들이 많았다. 또한, 제시문 다음에 주어진 두 개의 문제 중 제재에 대한 물음의 답만 코멘터리에 넣고 나머지 장치에 대한 물음의 답을 넣지 않은 학생들이 많이 있었다.

다음 학생을 가르치기 위한 조언과 길잡이

이 시험에서 중요한 것은 제시된 발췌문 또는 작품을 통하여 작가가 전하고자 하는 바 등을 적절히 도출하고, 그 도출 과정을 논리적으로 서술하는 것이다. 작품 또는 제시문을 통하여 작가가 나타내고자 하는 바 등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우선 낱말의 표현 및 문학적 장치들의 의미와 효과를 적절히 분석해야 한다. 그리고 그 낱말의 분석을 논리적으로 연관 짓고 종합하여 전체적인 내용 또는 주제를 적절히 도출하며, 그러한 도출 과정을 논리적이고 체계적인 구성 및 전개 방식으로 표현하는 것이 중요하다. 학생들이 다양한 시대, 다양한 장르의 텍스트를 읽고 이와 더불어 다양한 문학적 이론을 습득하여 스스로 주제 등을 도출하는 과정을 연습하면 도움이 될 것이다. 또한, 그러한 분석 및 도출 과정을 논리적이고 체계적인 글로 표현해 내는 연습을 많이 하면 좋은 페이퍼 1 코멘터리를 작성할 수 있을 것이다.

스탠더드 레벨에서 주어지는 도움 문제들의 내용들은 코멘터리 작성 시 빠짐 없이 넣어야 하며, 그 내용을 제시문을 파악하는 데에 적극 활용하며 코멘터리를 작성한다면 더욱 좋은 코멘터리를 쓸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주어지는 도움 문제들은 그야말로 제시문을 제대로 파악하기 위한 도움을 주기 위한 문제이지, 그 내용만으로 코멘터리를 채우라는 의미가 아니라는 것을 학생들이 알아야 한다.

그 문제들은 그 해에 주어지는 제시문에서 매우 중요하고 특징적인 요소와 관련된 문제들일 뿐이며, 그 내용들을 코멘터리에 필수적으로 넣되 더 완성도 높은 코멘터리를 작성하기

위해서는 제시문을 분석할 때에 살펴야 할 그 외의 여러 요소들 모두를 살펴야 한다는 것을 학생들이 알아야 할 것이다.

Higher level and standard level paper two

Higher level component grade boundaries

Grade:	1	2	3	4	5	6	7
Mark range:	0-4	5-8	9-11	12-15	16-18	19-22	23-25

Standard level component grade boundaries

Grade:	1	2	3	4	5	6	7
Mark range:	0-3	4-7	8-10	11-13	14-16	17-19	20-25

학생들이 어려워하는 것으로 드러난 프로그램과 시험의 영역

작년과 마찬가지로 학생들이 비교 대조를 통하여 에세이를 구성하는데 어려움을 보였다. 질문에도 명시되어 있는 이 비교 대조는 Criterion B의 채점 기준의 하나로 Criterion C와 더불어 낮은 점수 경향을 보였다. 작품간의 비교 대조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많은 학생의 경우 각각의 작품을 따로 예로 들어 질문에 답하고 있었다. 그리고 질문에 상관없이 장르적 특징으로 서론을 시작하는 경우도 많은데 효과적인 에세이 구성에 적절하지 못하다. 소설이란~, 시란~, 혹은 수필이란~ 식으로 장르적 정의를 설명하는 것으로 에세이 서론 대부분을 할애하는 것은 지양해야 한다. 답을 구성하는데 있어 설명의 나열에 그치지 말고 충분히 작품 속에서 근거를 찾아 설명하는 것이 좋은 점수를 얻는데 필요하다. 직접 인용은 아니라도 구체적인 내용을 들어 설명하는 것이 좋다. 간혹 질문과 상관없이 에세이가 진행되는 경우도 있는데 질문에 대한 대답에 중점을 두고 작품을 설명해야 한다. 내용 설명에 치우쳐 그 내용 혹은 주제를 둘러싼 작품의 형식적인 특징을 많이 간과하기 쉬운데 특히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은 Criterion C를 만족시키는 부분이기 때문에 학생들이 놓치지 않도록 해야 한다.

학생들이 잘 준비한 것으로 드러난 프로그램과 시험의 영역

여전히 어려움을 보이기는 하지만 예년과 비교하면 많은 향상을 보인 부분이 Criterion C였다. 점차 많은 학생들이 이 부분을 인지하고 에세이에 포함시키고 있다. 그리고 대부분의 학생들이 공부한 장르에 알맞는 질문을 선택했다.

학생들이 각 문제를 대하는데 있어서의 강점과 약점

장편소설

1 번과 3 번이 가장 학생들이 선호하는 질문이었다. 장편소설은 중단편소설과 더불어 가장 많은 학생들이 공부한 문학장르였다. 간혹 이문열의 *우리들의 일그러진 영웅* 을 예로 들어 장편소설 문제에 답한 학생들이 꽤 있었는데 이 작품은 중단편소설로 주의해야 한다.

- 인물 유형에 대한 질문으로 입체적 인물과 평면적 인물을 골라 분석하는 문제였다. 주로 고전소설을 공부한 학생들이 많이 선택한 질문으로 고전소설의 인물유형이 질문과 부합한 것 같다. 채만식의 *태평천하* 의 인물도 대표적 평면적 인물로 학생들이 다루고 있었다. 작품 속에서 인물들의 입체성과 전형성에 대해서는 대부분 다루고 있지만 그것이 어떻게 주제를 강조하고 어떤 효과를 지니는지에 대한 설명이 미흡한 경우도 많았다. 그리고 이러한 인물의 효용이 어떻게 두 작품에서 공통점이 있고 차이점은 무엇인지에 대한 설명이 부족한 경우가 많았다.
- 권선징악을 다룬 소설에서 그 주제와 인물, 사건 전개와의 관련성을 묻는 질문이다. 1 번과 3 번에 비교하면 많이 선택한 질문은 아니었지만 비교적 평이한 질문이었다. 권선징악처럼 내용이나 주제를 묻는 질문에서 학생들이 많이 놓치는 부분이 Criterion C 이다. 내용을 따라가다 보면 그 내용을 둘러싼 형식적인 부분의 설명을 다루지 않는 경우가 종종 있다.
- 가장 많은 학생들이 선택한 질문이다. 특히 이청준의 *당신들의 천국* 과 최인훈의 *광장* 을 공부한 학생들이 많이 선택했다. 공간적 배경에 대한 질문으로 질문에 초점을 맞춰 구체적으로 쓴 학생이 많았다. 다만 줄거리 위주의 단편적인 사실의 나열에 그치지 말고 작품의 내용을 근거로 충분히 설명하고 그 효과에 대해서도 다뤄야 한다.

중단편소설

매년 학생들이 많이 선택하는 문학 장르로 올 해도 많은 학생들이 특히 5 번과 6 번 질문에 답하고 있다. 한 가지 유의할 점은 한 작가의 두 작품만을 예로 들어 에세이를 작성한 학생들이 있는데 두 작가의 작품들로 답을 작성해야만 한다.

- 이 문제를 택한 학생 중에는 액자구성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경우가 있었다. 구성이 다른 작품을 예로 들어 그 효과에 대해 쓰는 질문이었는데 줄거리 위주의 글이 많았다. 줄거리는 굳이 소개 안 해도 되고 꼭 필요하다면 최소한으로 해야 한다.
- 시간의 흐름에 관한 질문으로 평면적 구성과 입체적 구성의 작품들을 예로 들어 답을 하고 있다. 질문에 초점을 맞춰 작품 속에서 구체적인 예를 들어가며 효과적으로 에세이를 구성한 학생들도 많았으나 4 번 문제에서도 언급했듯이 줄거리 위주로 에세이를 작성한 경우도 있었다.
- 복선의 효과를 묻는 질문으로 많은 학생들이 선택한 질문이기도 했다. 예로 든 중단편 소설에서 여러가지 복선과 그 역할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답한 학생이 많았다. 각 작품에서의 복선과 그 역할에 대해 자세히 썼지만 작품간의 효과적인 비교와 대조가 미흡한 점도 있어 아쉬웠다.

시

시 장르를 공부한 학생들은 대부분 9 번 문제를 선택해서 답하고 있다. 거의 모든 학생들이 두 시인의 시를 예로 들어 답하고 있으나 간혹 한 시인의 작품만으로 답을 구성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 선택한 학생이 거의 없어 논하기가 어렵다.
- 선택한 학생이 거의 없어 논하기가 어렵다.
- 시어의 모호성, 다의성에 관한 질문이다. 많은 학생들이 시의 제목에서부터 시 전반에 걸쳐 주요 시어의 특징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일행부터

순차적으로 마지막 행까지 설명하는 방식으로 에세이를 구성하고 있는 글이 많은데 이러한 방식이 항상 바람직하지는 않다.

희곡

매년 적은 수의 학생들이 공부하는 문학장르로 올 해도 소수의 학생들이 공부한 문학장르였다.

- 춤, 음악, 노래등의 극적 효과를 묻는 질문이다. 공부한 작품에서 이러한 요소들을 찾고 설명하는 것이 제한적일 수 있는 문제인데 몇몇 학생들은 아주 구체적으로 주제와 문제를 연결시켜 효과적으로 에세이를 작성하고 있다.
- 의상과 인물과의 연관성을 묻는 질문으로 많은 학생들이 이 질문을 선택하지는 않았다. 선택한 학생들의 글 중에는 가난과 연결짓는 글이 많았다.
- 관객의 연극 참여와 연관된 질문인데 난위도가 높은 문제중의 하나였다. 학생들의 글 중에는 관객의 단순 참여여부에 국한하지 않고 작품 속에서 대사의 종류나 행동에서 답을 찾은 경우도 있어 매우 인상적이었다.

수필

희곡과 더불어 소수의 학생들만이 공부한 문학장르이다. 한 작가의 작품만으로 답을 구성한 학생들이 있었다. 많은 학생들이 선택한 문학장르는 아니었지만 그 중에서 이러한 실수가 나오는 것은 주의할 부분이다.

- 소재나 대상이 비슷한 작품에서 그것이 어떻게 발전되는지를 묻는 질문이다. 많은 학생들이 선택하지는 않았지만 선택한 학생들은 대부분 딸에 대한 사랑, 가족애를 그 공통점으로 두고 질문에 답하고 있다. 작가의 의도와 문제를 효과적으로 연관지어 답한 글이 있었던 반면 단편적인 나열에 그친 학생도 있었다. 유독 이 문제를 선택한 학생중에는 작가의 문체적 특징에 무게를 두어 설명한 글도 많았다.
- 가장 많은 학생들이 선택한 질문으로 작가의 개성에 관한 질문이다. 개성은 수필문학 장르의 대표적인 특징 중의 하나로 학생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문제이기도 했다. 개성이 강한 여러 수필을 예로 들어 질문에 충실히 답한 학생이 많았다.
- 선택한 학생이 거의 없어 논하기가 어렵다.

다음 학생을 가르치기 위한 조언과 길잡이

Part 3 에서 공부하는 작품의 장르와 문제 선택에 관한 정보를 끊임없이 강조하여 학생들의 치명적 실수를 줄여야 한다. 줄어들고는 있지만 계속해서 외국문학작품을 예로 들어 답한 학생도 있고 여러 문제에 답한 학생도 있었다. PLA 에 없는 작가의 작품을 들어 에세이를 쓴 학생도 있었고 한 작가의 두 작품만을 예로 들어 답한 학생도 있었다. 특히 중단편 소설을 사용하여 장편소설의 문제에 답하는 경우도 있었다. 이러한 실수들은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부분으로 수업현장에서 계속 강조해야 할 것들이다. 학기를 시작할 때 업데이트된 Subject guide 를 학생들과 같이 공부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것이다.

이미 많은 학교에서 실행하고 있겠지만 학생의 글을 채점할 때 Criterion 별로 채점해서 피드백을 주는 것도 학생들이 채점기준을 이해하고 에세이를 작성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에세이 작성과정에서 문제와 상관없이 장르적 특징으로 미리 준비한 듯한 글로 서론을 시작하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 이러한 부분이 좋은 점수로 이어지는 일은 드물다. 줄거리나 사건 위주의 글보다는 논리적 흐름과 근거를 작품 속에서 구체적으로 찾으면서 글을 전개하도록 지도해야 한다.